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첫 번째 복음

성경: 창세기 1장 1-5절

Tag: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1:1-5)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첫 번째 복음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천지 보다는 우주라 함이 오늘날에는 더 적합한 표현이 된다.)

사실 이보다 더 확실한 명제는 세상에 없다.

많은 과학자가 이 명제를 부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설명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억지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준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억지로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나 겨우 만족시킬만한 억지론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천지창조에 관한 복음은 -세상에 있는 다른 창조실화처럼 모호하고 원시적이고 동화 같은 우화적 설명과 확연하게 다른 -지혜와 감동과 확신을 사람의 지성과 영성에 강력하게 계시하는 효과가 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강력한 서치라이트로 비추는 것과 같다.

천지창조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정리 정돈시킨다. 우리가 바라 보아야 할 대상을 만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주서야 할 절

대자를 대면하게 한다. 천지창조의 복음은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과 직면하게 한다. 천지창조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다. 비로소 자기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른채 방황하다가 천지창조 복음을 듣는 순간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게 된다. 이 진리는 모든 인생에게 변함없는 원리다.

뿌리를 알아야 열매를 알 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물론 첫 번째 복음, 천지창조에 관한 복음은 워낙 그 범위가 우주적이어서 한 사람 인간의 지성과 영혼 속에 다 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첫 단추가 천지창조에 관한 복음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5절 말씀은 창조의 첫째날에 관한 복음이다. 사실 1-2절은 서론에 해당하고 3-5절이 창조의 첫째날에 관한 내용이다.

또 그 단어 선정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수준의 단어를 선택할 수도 없고, 또 나는 천재가 아니니 노벨물리학 상을 받을만한 천재들이 이해할 수준의 수학기식으로 이 천지창조의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다.

어차피 아무리 천재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우주 안에 없을 것이다.

다만 성경은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어린이가 아닌, 지혜가 장성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더 깊고 오묘한 창조원리를 탐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님.

의심을 잔뜩 품고서 복음을 읽어도 무방하다. 다만 진리에 대한 탐구정신과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만한 인격만 있으면 된다.

오늘 여기에 모인 자들은 대부분 성인이고,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설명을 해보려 한다. 물론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나에게 아인슈타인 같은 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슈뢰딩거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문에도 ‘태초에(בְּרֵאשִׁית)’로 성경이 시작된다.

우주의 시작으로 성경이 시작된다. ‘우주의 시작’으로 복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우주를 시작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하늘들(복수);우리가 보는 하늘, 우주공간, 천국, 4차원의 세계

-땅;3차원, 물질,

## 2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은 하늘들에 관한 말씀이 아닌, 땅(물질)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모습은 아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땅이다.

-그러므로 2절은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어로 '카오스'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아무런 형태를 아직 취하지 않는 상태의,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형태의 물질 이전의, 물질의 원료가 되는 어떤 것이다.

-마치 물과 같은데(수면), 물이란 컵에 담기면 컵 모양으로, 주전자에 담기면 주전자의 모양을 띠는게 물이다. 즉, 아직은 아무런 형태도 갖추지 않는 텅 빈 공간과 같은 모습이어서

-아직은 공허하며, 깊은 흑암으로 마치 물처럼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고 있으면서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말씀이란, 곧 정보를 뜻하므로, 창조가 치밀한 하나님의 지적 정보에 기초해서, 지적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에너지가 되었다.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몇째 날이더라’ 라고 끝맺음 하는 관용구는 창세기 1장에서 6회 반복되었다.

-따라서 창세기 1에서의 하루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몇)째 날이니라’로 끝맺음한다.

-첫째날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아직 지구가 만들어지진 않았으니,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24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과학적으로는 빅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빅뱅 이론은 1927년 벨기에 뫼비엔 가톨릭 대학교의 조르주 르메트르(Georges Lemaître)라는 물리학자 겸 신부가 처음으로 주장하였고,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하게 되었고, 이렇게 팽창하는 속도를 측정해 보니 우주는 137억년 전에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계산값을 얻어냈다.

(그후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는 빅뱅 이후 현재의 크기로 팽창하는데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계산값을 얻었다. 초기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빛보다 빠른 팽창이 있었다는 이론이다.)

-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이 이론을 뛰어넘는 이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 많은 사람들이 굳이 지구의 24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3절은 아직 지구가 생기지 않은 상태이므로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것을 현대과학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 우주 자체를 지구에서 사용하는 시간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137억년이라는 계산도 무리가 있다.

- 시간이란 인간이 계산하기 쉽도록 집어 넣는 우주 입장에서는 태양계에서나 통하는 변수에 불과하다. 학자들이 시간 변수 외에 제대로 된 다른 계산법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이 있을지 모른다.

#### 4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란 가시광선에 불과하다. 가시광선이라 해도 그 색깔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색의 다양성은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다.

우주에는 가시광선이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빛들이 존재한다. 소리

도 일종의 빛이고, 심지어 휴대폰으로 잡을 수 있는 신호도 보이지 않는 빛이다. 인류는 수 많은 빛들을 활용해서 과학을 발전시켰다.

사실 지금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빛들을 감지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과 대비되는 어둠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할 때 암흑물질을 무시하고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측정 불가능한 암흑물질의 무게를 유추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4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빛(현재 우리가 측정 가능한 물질)과 어둠(암흑물질,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물질)으로 나누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 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1:1-5)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성경 자체가 과학서적이 아닌 서사적 기록이다. 우리는 다만 그 속에서 과학적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전파를 위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활용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과학적이라는 핑계로 복음을 무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다행스럽고도 당연하게 다른 종교서적과는 다르게 성경에는 이처럼 과학적인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 물론 과학을 뛰어 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4차원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다.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은 과학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계시들을 이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중에 벌어지는 초자연적 현상들과 일맥상통 하기 때문에 더 잘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헤리포터 시리즈가 왜 그렇게 선풍적이었을까? 그것은 딱딱한 세상에 사람의 상상력과 영성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구에 태어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우리의 지성이 우둔하나 예수님의 보배피를 의지하  
여 회개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깊이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어 하나님의 오묘하신 숨씨를 더 잘 깨닫게  
해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간  
절히 비오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4:3)